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업계 ‘기대반 우려반’

여행·유통업계, 매출 상승 ‘반색’
마트 등 “해외여행 증가시엔 역효과”
기업재량 출근자 ‘상대적 박탈감’
‘인력난’ 중기 “조업 차질…매출 하락”

올해 국군의 날(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여행·유통업계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업종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여행·유통업계는 반색하는 반면, 기업재량에 따라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개천절(10월 3일) 하루였던 10월 첫째주 평일 휴일이 이틀로 늘어나 징검다리 휴무가 만들어졌다. 연차를 활용하면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평일보다 주말·휴일 매출이 높은 유통업계와 황금연휴에 예약률이 증가하는 여행업계 등은 임시공휴일 확정을 반기며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5~8일을 연휴로 만들어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업체들이 제출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임시공휴일이었던 6일 당일 매출 실적은 백화점 1231억원, 대형마트 1010억원, 가전전문점 142억원으로 전주(4월 29일) 대비 각각 34%, 41%, 39% 증가했으며 공휴일이 아니었던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25%, 66%, 45% 늘었다.

하지만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뚜렷한 매출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징검다리 휴무로 화요일인 10월 1일 하루만 쉬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연차를 활용해 길게 연휴를 만들 경우 해외여행만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손이 부족해 단 하루 휴무에도 경영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등은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직원에게 휴무를 주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유통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면서도 ‘휴일도 어떤 날인가에 따라 매출 상승 여부가 달라져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같은 주말이라도 어떤 날인가에 따라 매출 상승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마냥 ‘호재’라고 볼 수는 없다. 연차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며 “임시공휴일은 마트에 오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거나 놀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휴일 매출이 평일보다 잘 나오는 대형마트 특성상 온·오프라인 쇼핑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일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매출 상승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경기 침체 등으로 가정마다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으니 매출이 크게 증가할지는 모르겠다. 휴일 당일 매출이 늘어도 다음날 평일 매출이 그만큼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10월에는 연차를 활용하면 6일 이상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는 날이 많아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그 기대가 더욱 커졌다”면서도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현재 광주·전남지역 여행 수요가 높지 않다. 연차를 쓰지 않아도 길게 쉴 수 있는 추석연휴 여행상품도 잔여석이 절반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다. 일본여행 상품은 40%가 남아있다. 작년에는 여행상품 예약이 대부분 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에 못한 여행, 10월에 간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보다 여행 수요가 감소해 확실히 예약이 늘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손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은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하루 휴무로도 생산량이나 매출액에 타격을 입거나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져 임시공휴일 지정을 마냥 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기업 재량에 따라 임시공휴일에도 출근해

야 하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제 2020년 8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 휴무계획 조사’에 따르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7일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생산량이나 매출액 타격 우려로 일을 쉬지 않는 기업도 많았다.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50.3%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 휴무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휴무 계획이 있는 기업은 28.7%였으며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21.0%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마다 경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는 기업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 조사 결과와 같이 올해 역시 하루 휴무에도 생산량·매출액·납기일 등 타격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현대차·기아,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기아는 추석 귀향길 장거리 운행에 앞서 차량의 주요 부품 및 기능을 점검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돕고자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점검 항목은 오일류, 냉각수, 배터리, 공조장치, 타이어 마모도 및 공기압, 등화장치,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등이며 워셔액 보충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4일부터

6일까지 △현대차 ‘마이현대(myHyundai)’ △기아 ‘마이기아(MyKia)’ △제네시스 ‘마이제네시스(MYGENESIS)’ 등 각 사 통합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상 점검 쿠폰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이후 현대차/제네시스 고객은 전국 블루렌즈, 기아 고객은 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큐를 방문해 무상 점검 쿠폰 제시 후 차량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현대차 080-600-6000/기아 080-200-2000/제네시스 080-700-600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광은리더스클럽 추석 나눔행사 전개

지역 복지시설에 후원금·물품 지원

광주은행은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회장 박철홍)’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랑 뜻을 모아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 남구 소재 ‘엔젤하우스’와 서구 소재 ‘효드림실버홈’에서 진행됐으며,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은 각 시설에 생필품을 비롯한 필요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으며 김병내 남구청장도 동행해 뜻깊은 나눔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광은리더스클럽은 광주은행과 함께 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2007년에 창립해 현재 2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은 물론이고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복지시설 및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박철홍 광은리더스클럽중앙회장(골드클래스 회장)은 “지역 최고 CEO 모임인



광주은행이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랑 뜻을 모아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엔젤하우스’와 ‘효드림실버홈’에서 진행됐다. **광주은행 제공**

광은리더스클럽은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등 지역민과 상생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노동 칼럼

A씨는 연중무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22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A씨는 처음에는 평일 주간(오후 4시~오후 8시) 근무자로 일하다가, 23년 하반기부터는 평일 야간(오후 8시~오후 12시)까지 근무 시간을 늘렸다.

사업장에서는 A씨가 신청하지 않아도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23년 4월, 24년 4월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입금해주었다. 퇴직 후 A씨가 남은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퇴직금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사업주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A

씨가 우리 센터에 연락하게 되었다.

우선, A씨가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 또는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마련 등 법적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노동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제한하고 있다.

A씨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었다면, 이것은 적법한 중간 정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씨에게 그동안 지급된 퇴직금 중간 정산금품과 별개로 사업주는 A씨의 퇴직 시점

에서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 지급된 중간 정산 금액은 A씨의 부당이익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적법하게 발생하는 퇴직금액과 기지급액을 상계 처리한다.)

특히, A씨처럼 근로기간 도중에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재정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A씨는 근로기간 내내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23년 4월에 받은 퇴직금은 야간 근무(주 2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 100만원 남짓 받았고, 24년 4월에는 주야 근무(주 40시간) 한 것에



이연주
공인노무사

대해서 퇴직금으로 200만원 남짓 받았다.

하지만 A씨의 퇴직금을 다시 적법하게 계산해본다면, 24년 7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206만 740원×3개월÷92일=6만7198원) 22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2년 4개월(853일)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6만7198원×30일×853일÷365일=471만1224원)

그동안 받은 퇴직금은 300만원 남짓이니 차액이 150만원 정도는 발생한다.

그 외에도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A씨처럼 1년 단위로

정산받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이 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 단위로 계속 늘어난다. 적법하게 중간 정산을 하고 추가로 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할 때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긴 하였으나, 처벌 조항이 없는 관계로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퇴직 일시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 일시금이란, 가장 우선은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적립 또는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해주시라. **1588-6546**